



2027년 예산안 및 국세수입 규모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< 보도 내용 >

- 2026.8.19. 경향신문은 「반도체 훈풍에 내년 국세 수입 580조 추산… 청년미래적금 소득상한 폐지할 듯」 제하의 기사에서,
- “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 전망치를 58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.”, “정부는 늘어난 세수 여력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소득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.”, “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일찍부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매칭 지원 제도도 내년도 예산에서 추진한다.”라고 보도했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
- 정부는 현재 '27년 예산안을 마련중에 있으며, 청년미래적금 소득기준 폐지, 아동 자산형성 지원제도 도입 및 국세 수입의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결정된 바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재정경제부 조세추계과	책임자	과 장 김성수 (044-215-4120)
		담당자	사무관 황현 (myhyun11@korea.kr)
	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정애 (044-214-2330)
		담당자	서기관 하치승 (hcs017@korea.kr)
	기획예산처 기금운용혁신과	책임자	과 장 김건민 (044-214-2370)
		담당자	사무관 권준수 (junsu195@korea.kr)